

강홍석 “여장 한채 오디션 보러 가는 길, 아직도 소중한 기억”

뮤지컬 ‘킹키부츠’ 다섯 시즌 중 네번 출연
“지금의 ‘롤라’가 가장 좋아...내면에 집중”

“처음에 캐스팅됐을 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큰 책임감을 갖고 해왔고, 어느새 다섯 번째 시즌을 마쳤죠. ‘킹키부츠’가 이제 ‘제2의 맘마미아’ 같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안에 제 이름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겠죠?”

배우 강홍석은 뮤지컬 ‘킹키부츠’ 초연부터 최근 서울 공연을 마친 다섯 번째 시즌까지 네 번의 ‘롤라’로 살아왔다. 한 시즌을 제외한 최다 출연으로, ‘원조 롤라’로 불린다. 세상의 편견과 억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아름답고 유쾌한 드래그퀸이다. 또다른 주인공 ‘찰리’와 함께 폐업 위기 구두공장을 살리고자 80cm짜리 아주 특별한 부츠를 만들며 세상에 나아간다.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오랜 시간 ‘킹키부츠’를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은 분께 사랑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많이 웃고, 웃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초연 땐 관객들이 여장한 제 모습에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감정이 섞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호는 물론 아무렇지 않게 봐주죠. ‘킹키부츠’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세상이 온 것 같아 기분 좋아요. 오래 사랑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 초연 당시 캐스팅되기까지 7차례 오디션을 보며 노력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브로드웨이에서 ‘롤라’를 연기한 배우 빌리 포터의 영상을 보고 감탄하며 수없이

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 역할을 꼭 하겠노라 다짐했다. 오디션을 위해 한 달 동안 15kg를 감량했고, 여장을 하고 대학로 거리를 거닐기도 했다.

“벌써 10여년 전이죠. 오디션 회차를 거듭하며 의상을 직접 제작하고 가발에 분장까지 번신해서 갔어요. 아예 ‘롤라’가 된 거죠. 그때 그 모습을 하고 대학로도 걸었어요. 카페에선 여자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걷는지 관찰하며 하나씩 공부했죠. 당시 사람들이 힐끔힐끔 이상하게 봤는데, 오디션 보러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가장 놀랐죠. (웃음) 아직도 생각나는 소중한 기억이에요.”

강홍석은 “나이가 들어서 하고 있는 지금의 ‘롤라’가 제일 좋다”고 했다. “너 자신이 데라. 타이은 차고 낫친다”는 그 말뜻을 이제 알 것 같다”고 했다.

“초연과 재연 땐 형들의 인생 경험과 성숙함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잘 안됐죠. 이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어렸을 땐 패기와 열정이 더 넘쳤겠지만, 균형감은 지금이 더 좋아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롤라의 메시지도 더 와닿죠.”

2년 만에 돌아온 ‘킹키부츠’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12만7466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과 달리 거리두기 해제로 꽉 찬 객석에 합성도 들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소통이 첫 번째예요.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축제 같은 작품이죠. 장남에 시장 가듯, 공연에 오는 관객들의 기분이 좋아져요. 당시엔 코로나로 웃음소리가 잘 안 들리고, 환호 없이 박수만 쳐서 아쉬웠어요. 지금은 함께 뛰고 볼 수 있어서 더 즐거웠죠. 관객들 눈빛도 더 초롱초롱했어요.”

다음 시즌에도 그는 함께하고 싶다고 애정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건 체력이라한다. “전개가 빠르고 음도 높고 퀵체인지(의상·분장 등 변화)도 많아서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고 했다.

강홍석은 지난해 뮤지컬 ‘하데스타운’부터 ‘데스노트’, ‘킹키부츠’까지 내리 흥행작에 출연하며 힘 없이 달려왔다. ‘하데스타운’을 마치고선 여러 드라마 제의도 왔지만, ‘데스노트’를 다시 꼭 하고 싶어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2015년 초연과 2017년 재연 모두 사진 ‘뮤크’로 출연했다.

“뮤크’는 제게 소중한 역할이에요. ‘롤라’와 함께 대중적으로 제 대표 캐릭터로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죠. 이전에 연기하며 스스로 해결 안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 시기에 생각보다 많은 대본이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했죠. ‘하데스타운’도 정말 위대한 작품이에요. 배우들이 뜨겁게 웃었고, 뜨겁게 울었어요. 다음 시즌은 더 잘 될 거예요.”

‘킹키부츠’는 다음 달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개 지역 투어에 나선다. ‘시카고 타자기’, ‘김비서가 왜 그럴까’, ‘호텔 델루나’, ‘대박부동산’ 등 브라운관으로도 대중들을 만나는 강홍석은 내년엔 뮤지컬 대신 드



라마로 인사할 예정이다.

데뷔 11년차를 맞은 그는 “아직 한참 더 걸어가야 한다”고 빙긋이 웃었다. “뮤지컬은 평생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도 해야하고, 좋은 감독님들과도 더 같이 연기해야 한다. 악역 등 해야 할 역할도 태산’이라고 말했다.

“제가 확실히 남들과 다르게 생겼잖아요.

턱도 튀어나오고 목소리도 탁성이죠. 하지만 관객들은 저만의 그 특별함을 좋아해주죠. 네 살 된 딸이 친구들과 공연장에 놀러와서 ‘우리 아빠 멋있지’라고 할 때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너무 기분 좋아요. 예술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제 꿈이에요. 황정민, 하정우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티아라 지연·황재균, 다음달 2일 결혼



그들 ‘티아라’의 지연(29·박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35·KT위즈)의 결혼날짜가 공개됐

다. 2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은 12월 2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이 올해 초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12월에 한다고 예고했었다. 날짜는 이미 확정됐는데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해왔고 꾸준히 애정을 키워왔다.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4차전 키움 히어로즈 대 KT 위즈의 경기를 지연이 황재균 응원 차 찾기도 했다.

1993년생인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13년 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7년생인 황재균은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는 KT 소속이다. 국가대표 3루수이며 지난 시즌엔 데뷔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다. 올해 KT는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BTS, ‘빌보드200’ 20주 연속 진입...테일러 스위프트 9개 앨범 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간 진입하고 있다.

빌보드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11월5일 자)에 따르면, ‘프루프’는 ‘빌보드 200’에서 52위를 차지했다. 3주째 역주행하며

BTS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 52위

지난 주 46위를 차지했던 이번 음반은 이번 주 6계단 하락했으나 ‘빌보드 200’에 20주 연속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00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68위보다 32계단 하락했으나 해당 차트에 6주 연속 머물렀다.

전날 빌보드 트위터 등을 통해 예고됐던 것처럼 4세대 K팝 간판 걸그룹들인 ‘르세라핌(LESSERAFIM)’과 ‘(여자)아이들’((G)I-DLE)이 이번 주 ‘빌보드 200’에 14위와 71위로 각각 처음 진입했다.

한편 정규 10집 ‘미드나잇스(Midnights)’로 각종 차트에서 신기록을 쏟아내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빌보드 차트에서도 각종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미드나잇스’가 1위를 차지한 걸 비롯해 ‘포크로어(Folklore)’ 21위, ‘스피크 나우’ 172위 등 기존작 포함 스위프트의 앨범 총 9개가 이번 주 ‘빌보드 200’에 들어왔다.

또 전날 예고 기사를 통해 알릴 것처럼, 스위프트가 ‘미드나잇스’ 수록곡들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톱10 출세우기를 한 데 이어 총 20곡을 ‘핫100’에 포함시키는 기염도 토했다.

이와 함께 스위프트는 ‘빌보드 200’과 ‘핫 100’ 1위를 4번째 동시에 거머쥐는 기록도 썼다.

해당 부문 최다 기록이다.

청춘의 애뜻한 겨울나기... ‘그 겨울, 나는’

이달 말 개봉 확정, 티저 포스터 공개

“사랑이 가장 피곤했던 것 같아” 국내 영화 ‘그 겨울, 나는’이 11월 말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서로를 안아주고 있지만 불안한 눈빛을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꿈을 품었던 사랑스러운 한때를 지나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된 감정을 담았다.

“그 겨울, 나는”은 미친 듯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 중인 가난한 공시생·취준생 커플이 애뜻한 겨울나기를 보내는 내용이다. 청춘들의 현실적 고민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해당 영화는 지난해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 영화 오늘-비전’ 부문 ‘한국영화감독 조합상-메가박스 상’, ‘올해의 배우상’(권다함), ‘왓차상’까지 3개 상을 거머쥔 오성호 감독 장편 데뷔작이다. 배우 권소현(혜진 역)과 배우 권다함(영하 역)이 주연을 맡았다.

권소현은 2009년 걸그룹 ‘포미닛’으로 데뷔한 후,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미스터 기간제’, ‘살인자의 쇼핑목록’ 등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권다함은 영화 ‘그녀들의 주기’, ‘굿타입’,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법대로 사랑하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전남 최대 ‘남도 영화제’ 내년 순천에서 개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다채로운 준비

순천시가 전남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남도 영화제’의 내년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순천시는 내년 남도 영화제 개최지 선정 과정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시가 영화제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순천의 경우 전남영상위원회 등 영화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 풍부, 뛰어난 교통 접근성, 전남을 비롯한 광주·영남지역의 영화 마니아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영됐다.

내년 9월말~10월초에 열리는 남도 영화

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개·폐막식, 야외 상영 등을 박람회장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실내 상영관에서도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영화인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영화제가 박람회 기간에 열리는 만큼 숙박업소·음식점 할인 등의 행사로 영화제를 찾는 영화인들이 순천에 머물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남도 영화제를 통



해 지역민에게 다채로운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도민과 영·호남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는 유망무한 영화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남도 영화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체육형 영화제라는 설정으로 전남도 22개 시군이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컴백 앞둔 ‘하이라이트’, 세 번째 콘셉트 포토 공개



그들 하이라이트(Highlight)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하이라이트(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는 1일과 2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애프터 선셋(AFTER SUNSET)’의 세 번째 콘셉트 포토 ‘던(DAWN)’ 버전을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 속 하이라이트는 침대가 놓인

방 안을 배경으로 하이라이트만의 새벽빛을 표현했다. 특히 1일 공개된 개인컷 하단에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신곡의 가사 일부를 영어로 덧붙였다.

한편, 타이틀곡 ‘얼론(Alone)’을 비롯해 총 5곡이 수록되는 ‘애프터 선셋’은 오는 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